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2호 【루계 제23469호】 주체100(2011)년 6월 1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힘차게 앞으로!

5월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소식에 무한히 고무되여 생산돌격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온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5월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5월 주체철과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보산제철소의 로동계급은 하루평균 전달보다 1.3배의 주체철을 생산하여 제강원료를 넉넉히 보장하였다. 1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어 월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해나갔다. 보산제철소와 1강철직장, 압연, 쇠바줄, 6천t프레스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계급은 현시기 강철생산을 늘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치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합리적인 원료장입방법과 야금행정에 대한 기술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의 단합된 위력으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맡겨진 주체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주체철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1강철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성과를 확대하였다.

1호, 2호초고전력전기로의 용해공들은 전달보다 하루평균 한차지의 쇠물을 더 뽑아냈고 차지당 쇠물생산을 늘여 매일 수십t의 강철을 더 생산하였다. 다른 전기로의 용해공들도 한t의 강철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종전보다 장입시간을 단축하고 로보수시간을 최대한 줄여 전기로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련속조피부문의 로동자들은 공정간 협동을 강화하여 많은 량의 강편을 생산하였다.

선행공정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압연강재생산단위들에로 타번져 철강재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압연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확보하고 점검보수를 잘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집중적인 생산전투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쇠바줄직장과 6천t프레스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실수률을 최대한 높이는 사업에 불을 걸어 압연강재생산을 늘이였다.

본사기자 전성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월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철강재증산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더 많은 철정광을 보내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발동하고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로천분광산에서 박토처리와 철광석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하였다. 대형채굴설비들을 매장량이 풍부한 구역들에 배치한 이곳 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확보해놓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지난 시기보다 현저히 높이였다.

운광사업소의 일군들과 대형자동차운전사들은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부분을 갱신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운수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한편 대형자동차들의 정비보수를 예견성있게 진행하고 기동적인 전투조직으로 철광석과 박토운반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박토콘베아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자기의 위력을 나타내도록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철광석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선광부문의 광부들은 대형마광기와 선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자검자수를 잘하고 생산성과 실수률을 높이는 투쟁에 불을 걸어 같은 조건에서 많은 량의 철정광을 생산하였다.

중요생산단위들에서 대고조진군의 발구름소리가 드세차게 울리는데 맞게 공무분공장과 정품가공과 자재보장을 앞세워 5월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성과에 끝없이 고무되여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5월계획수행의 개가가 높이 울려퍼졌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희천발전소 발전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수행기간 2호발전소의 모든 입구변들과 1호발전소의 비상변생산을 빛나게 결속하고 2호발전소 발전기, 타빈부속품가공실적을 부쩍 끌어올리였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희천2호발전소 입구변들의 생산을 결속하는것을 5월전투의 중심과녁으로 정하고 직장,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입구변을 빨리 보내주어야 희천2호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울리는 그날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이곳 발전설비생산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치렬한 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대형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5월초에 2호발전소의 첫 입구변을 현지로 떠나보낸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구호를 가슴깊이 새기고 높은 기술기능과 책임성을 발휘함으로써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입구변들의 총조립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발전설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희천1호발전소에 보낼 마지막비상변생산을 결속하는것과 함께 입구변부속품가공전투를 힘차게 벌려 계획수행에 큰 기여를 하였다.

본사기자 리병춘

식료일용공업성에서

온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식료일용공업성에서 뜻깊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맡겨진 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으로 일떠선 생산공정들이 더 큰 은을 내도록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당과류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질좋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일념을 간직한 대동강식료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드높이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리며 5월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삭주식료공장, 창성식료공장, 청진기초식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생산계획을 일정보다 앞당겨 수행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세수비누, 치약을 비롯한 화장품생산을 늘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갈 불타는 일념을 간직한 평양수지연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불타는 애국심과 창의창발성을 계속 높이 발휘하면서 필기도구생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평양일용품공장, 원산유리병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여러가지 일용품과 유리병, 각종 유리그릇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본사기자 김충성

나라의 철강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철광석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김진명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4호 주체100(2011)년 5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를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리무영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위훈을

8만산발파 성공

능금도간석지건설장에서

지난 5월 31일 능금도간석지건설장에서 방조제공사를 위한 8만산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발파의 성공으로 간석지건설에서 기본대상인 방조제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황해간석지건설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방조제공사에서 발파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명심하고 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쳤다. 사업소일군들은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목표밑에 기술자,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그 방도를 찾아나갔다.

사업소에서는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기술적대책을 세우고 먼저 수십개의 수직굴, 수평굴을 뚫기 위한 전투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들끓는 전투장에 나간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화선식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리면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건설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결사관철의 의지로 가슴을 끓이며 막아나서는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갔다. 건설자들은 하루 굴진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날마다 집단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도갱건설을 끝내고 폭약장약을 따라세웠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발파개시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였다. 순간 건설장을 뒤흔드는 폭음이 울리고 흙기둥이 솟구치는 속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터치는 환호성이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방조제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김창길

농업부문에 더 많은 뜨락또르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신충혁 찍음

설비조립 완성, 생산공정별시운전 진행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건설장에서

◎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대규모과일가공기지로 훌륭하게 일떠서고있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건설장에서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해주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과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과일가공설비조립이 완성된데 이어 생산공정별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것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과일종합가공공장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의지를 안고 조선인민내무군 윤경포소속부대 군인들을 비롯한 군인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밑에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건축공사를 끝내고 설비조립전투에서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리봉암, 배성일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기술자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설비조립전투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사이다생산설비조립을 맡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기중기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던 대형발효탕크들의 설치를 단 하루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원액생산공정을 담당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도 수십대의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식초생산설비조립전투장에서도 군인건설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무게가 3t이나 되는 발효탕크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

한마음한뜻이 된 군민의 창조적지혜와 힘은 드디여 수백종의 많은 생산설비들에 대한 조립을 끝내게 한데 이어 공정별시운전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군인들,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힘찬 투쟁에 의하여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이 조업하게 될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질좋은 명주솜 생산

함흥제사공장에서

경공업전선 그 어디에서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속에 함흥제사공장에서 또 하나의 혁신의 새소식이 전해졌다.

매달 맡겨진 비단실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최근 경제적실리가 큰 명주솜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질좋은 명주솜을 생산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제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까운 몇해안에 인민소비품생산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생산하고있는 명주솜은 비단실을 뽑고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것으로 하여 경제적효과성이 큰것은 물론이고 그 질이 좋아 호평이 대단하다. 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이 간단하여 실리도 크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명주솜을 공장의 실정에 맞는 독점지표로 설정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잠업비단지도국의 일군들은 설비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명주솜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실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하나의 경공업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열풍이 온 공장에 타번졌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들을 공장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하여 짧은 시일안에 가공직장에 명주솜생산공정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질좋은 명주솜이 팡팡 쏟아져나오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함흥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인민생활향상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박유정

언제 총공사량의 65%이상을 해제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안은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이 언제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과감한 공격전으로 언제 총공사량의 65%이상을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몸소 원산군민발전소 언제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빠른 시일에 발전소건설을 끝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하루빨리 발전소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언제쌓기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언제건설을 맡은 언제건설려단에서는 단위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언제공사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중기계들과 운수기재들을 만가동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드팀없는 립장을 가지고 발전소언제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언제공사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중기계대대와 운수1, 2대대에서 굴착기들과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언제공사에 필요한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이 단위들에서는 륜전기재들을 만가동시킬수 있게 자체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점검을 자주 진행하여 매일 맡겨진 수송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무넘이언제굴착을 맡은 도청년돌격대의 돌격대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으로 굴착전투를 힘있게 벌려 마감단계에서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도탐사관리국대대에서도 언제가 높아지는데 맞게 제기되는 언제좌우안 지반시추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려 언제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원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시, 군들의 수많은 녀맹원들이 언제건설장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떨쳐나선 발전소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언제건설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김일성조선의 100년, 승리와 기적의 력사

우리 수령님 제일 사랑하신 노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들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제일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신 노래이다.

80여년전 길림의 송화강기슭에서 부르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까지 《사향가》는 수령님과 참으로 깊고깊은 인연을 맺고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하많은 사연들을 력사에 남기였다. 하기에 우리 작가들과 음악가들, 력사가들은 이 노래를 두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주제가라고 평하고있다.

오늘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우리 인민들이 각별히 사랑하는 명곡들중의 하나로 불리워지고있다. 이 노래는 음악예술부문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형식으로 제일 많이 형상되는 유명한 서정가요로 손꼽히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사향가》가 어떤 노래인가고 물으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며 고향에 대한 노래들중에서 가장 훌륭한 명곡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대답만으로는 《사향가》의 심오한 사상정서세계를 다 알고있다고 볼수 없다.

이 가요는 그 정서적깊이와 여운이 류다른 음악작품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세계를 똑바로 알자면 우리 수령님께서 왜 한생토록 이 노래를 그리도 사랑하시였는지, 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수령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군 하시였고 자신과 동지들, 인민들에게 마음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싶으셨는지 그 깊은 심중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생애에서 가장 큰 봉우리를 이루는것은 항일혁명력사이다. 백두산이 이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인것처럼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혁명력사는 근 한세기를 헤아리는 조선혁명사의 시원을 열어놓고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밑뿌리라고 할수 있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고향을 떠나였다가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안에 다시 들어서실 때까지 우리 수령님의 항일혁명력사를 대교향악으로 형상한다면 틀림없이 그 주선률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일것이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결작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치는 예술공연이나 큰 음악작품들인 경우 항일혁명력사편은 응당히 《사향가》가 주제가로 형상되고있다.

주체음악의 전통과 초석을 마련한 항일혁명음악의 보물고에는 사상예술적성과로 보나 력사적의의와 가치의 견지에서 보나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상징할수 있는 대표적인 혁명가요들이 적지 않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그 모든 노래들을 낳은 명곡중의 명곡이라고 볼수 있다.

이 명작에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어떻게 열리였는가에 대한 력사의 물음뿐아니라 조선의 첫 세대 혁명가들이 어떤 인간들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꿋꿋이 헤쳐오게 한 백절불굴의 신념과 영웅적희생성의 바탕에 어떤 고결하고 열렬한 감정세계가 깔려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다.

《사향가》는 제목그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이다.

만사람의 사랑을 받는 고향에 대한 명곡들을 보면 례외없이 고향을 떠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심리세계에 형상의 바탕을 두고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은 고향을 멀리 떠난 인간의 심장속에서 가장 절절하고 진실하게 뿜어져나오기마련인것이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의 《사향가》에는 고향에 대한 그 어느 명곡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심각한 극적감정이 비껴있다. 가사와 선률은 비록 은은해보이지만 그속에는 리별의 아픔과 상봉의 갈망, 열렬한 사랑과 서리발치는 증오, 애틋한 그리움과 불타는 맹세의 첨예한 극성이 불물처럼 격렬하게 들끓으며 흘러가고있다.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던 수난의 세월에 우리 겨레는 정을 쏟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고향산천마저 잃었다.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자손손 오붓하고 화목하게 살아온 정다운 고향을 떠나 눈물을 뿌리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느지 않으면 안되였다.

늙으신 조부모님께서 계시는 나서자란 정든 고향, 평양에서도 절승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만경대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10대의 소년시절의 우리 수령님도 망국민의 아들이시였다.

열두살에 혼자서 천리길을 걸어 찾아왔던 고향을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이하여 열네살에 다시 떠나시지 않으면 안되였던가.

그때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끓던 뼈아픈 피로움과 비장한 각오가 《사향가》의 마지막구절에 새겨져있다.

…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이 구절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사상적높이, 정서적깊이가 집약되여있다.

조국을 하직하시던 압록강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심리적체험을 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음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력사와 인민앞에 조국을 책임지시였다.

열네살의 작은 어깨우에 빼앗긴 조국과 고향을 다시 찾을 무거운 의무를 걸머지시던 그때에 우리 수령님은 망국소년의 리향길이 아니라 조선의 혁명가의 첫걸음을 떼시였다. 사랑하기에 떠나야 했고 기어이 돌아와야 하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는 혁명가의 신념이 《돌아가리라》라는 한마디 맹세로 함축되였던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음미해볼수록 그 심오한 극성이 더더욱 가슴을 파고드는 철학적인 명곡이다.

《사향가》에 묘사된 고향에 대한 형상은 어머니와 동생들, 만경대의 봄이다. 그러나 혁명의 길을 떠나실 때 우리 수령님을 바래워드리던 정다운 식솔들이 계신 곳은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가 아니라 멀리 이국땅이였다. 낯설고 물설은 그 땅에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신 아버님이 묻혀있었다.

조국을 찾아야 어머님과 동생들도 그리운 만경대로 돌아갈수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어머님과 동생들의 모습, 정녕 그것은 열두살에 천리길을 걸어 조국으로 나오시면서 보았고 열네살에 또다시 천리길을 걸어 조국을 떠나시면서 가슴속에 뼈아프게 새겨두신 불쌍한 인민의 모습이였다. 어머님과 동생들만이 아닌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우리 수령님의 혈육들이였고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땅전체가 수령님의 고향이였다.

가정과 인민, 고향과 조국을 하나의 모습, 하나의 운명으로 합치고 고향의 아들의 소박한 향토애를 조국을 책임진 혁명가의 애국심에로 승화시킨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심원한 철학세계가 있는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수령님의 심장속에서는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라는 애절하고 처량한 선률에 비할수 없는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라는 절절하고 강렬한 사랑의 노래가 메아리쳐 울려퍼졌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온 항일투사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야말로 빨찌산의 사향가였다고, 어렵고 힘겨울 때 수령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자기도 모를 이상한 힘이 솟구치군 하였다고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투사들의 이 이야기를 무심히 들을수 없다.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빨찌산용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고결한 희생정신의 비결을 그들이 지닌 위대한 사상에 대한 신념이나 강의한 의지력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투사들의 인간세계, 혁명세계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 론의로밖에 볼수 없다.

투사들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위업을 위한 영웅성과 희생성은 사상이나 리념에 대한 충직성이기 전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정답고 친근한 모든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였다. 그 누구보다도 가정과 고향을 지극히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으로 뼈저리게 느낄줄 아는 참되고 견결한 인간들이였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고향과 가정을 떠나 목숨걸고 총을 잡은 그들이였다.

밀영의 깊은 밤 우등불가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불러주시던 《사향가》는 빨찌산대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모든 인간의 정을 하나의 지향, 하나의 사랑으로 합쳐주는 인민의 목소리, 조국의 모습이였다. 아름다운 만경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어서 빨리 조국을 되찾고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속에 혁명이란 무엇이고 혁명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사향가》를 처음 배우신것은 주체25(1936)년 봄 만강의 시내가에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로부터 어리신 나이에 고향을 떠나 부모형제를 다 잃고 총을 잡게 된 가슴아픈 사연을 들으시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였다.

수령님의 《사향가》는 이렇게 투사들의 심장속에 흘러들어 빨찌산의 사향가로 되였다.

력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빨찌산대오를 분연히 일떠세우시던 라자구등판에서의 맹세와 천교령눈보라속에서의 《반일전가》의 비장한 선률도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라는 《사향가》의 메아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싶으면서도 영영 돌아오지 못할 최후의 길로 서슴없이 떠나가면서 투사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불러주시던 《사향가》를 가슴에 안고 갔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이들보다 이국의 산야에 피를 뿌리며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이들이 더 많은 조선의 첫 세대 혁명가들, 그들이 무엇때문에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혁명의 길에 주저없이 청춘을 내대였는지 《사향가》는 눈물겹게 이야기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력사적인 날에 항일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며 김정숙어머님께 산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지 않는가,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한번 불러보라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노래를 부르시는 어머님의 눈가에도, 수령님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노래를 듣는 투사들모두가 눈굽을 적시였다고 한다.

《사향가》에는 이런 만단사연이 담겨져있다. 우리 수령님과 조선의 첫 세대 혁명가들이 흘린 피눈물의 무게가 바로 《사향가》의 무게이며 인민에게 다시 찾아준 조국의 가치가 바로 《사향가》의 불멸의 가치임을 력사는 증명해주고있다. 조선혁명의 선구자, 개척자들의 위대한 정신력의 맨 밑바탕에 어떤 인간적감정이 피처럼 진하게 흐르는지 교과서에서도, 예술의 화폭에서도 다 느낄수 없는 체험을 다름아닌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3개 절이 대변해주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사향가》를 창작하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80여년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흐르고흐르지만 우리 인민은 지금도 80고령의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한손을 흔드시며 열정적으로 《사향가》를 부르시던 력사적인 화폭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날의 수령님의 모습, 수령님의 음성을 인민의 심장속에 두고두고 잊을수 없도록 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응심깊은 심정을 명곡은 말해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일성**조선의 후손들에게, 새 세대 혁명가들에게 이르시는 영원한 유훈의 목소리이다.

이 노래를 수령님께서는 기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부르시였다. 인민에게 또 하나의 큰 행복을 안겨주시였을 때에도 부르시고 가슴아픈 추억을 더듬으실 때에도 부르시였다.

《사향가》는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신 업적만으로도 대를 두고 칭송을 받으며 편히 쉬셔야 할 우리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백두의 행군길을 멈추지 않도록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준 혁명의 불길이였다.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시였지만 꿈결에도 그립던 만경대가 아니라 강선으로 떠나가시던 력사의 갈림길에서, 아버님과 어머님, 동생을 이국땅에 묻고 홀로 들어서시던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앞에서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느끼실수 있었던 극적인 감정체험이 《사향가》의 메아리에 비껴있다.

《사향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색과 추억을 눈보라치던 압록강가에, 아버님의 유언과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앞에,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령혼앞에 때없이 세워주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스스로 걸머지신 혁명가의 책임감을 자각시켜준 빨찌산의 노래였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이 노래를 잊지 못해하시며 그리도 사랑하신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각별한 사랑은 이 가요에 깃든 사연들을 대대손손 전하는 많은 도서들과 예술작품들이 태여나게 했다. 그러나 이 명곡에 대한 인민의 애정이 아무리 큰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에는 비할수 없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십년세월 이 한편의 명곡을 놓고 대기념비의 조각군상도, 국보적인 미술작품들도 창작하게 하시고 녀성3중창과 방창, 바이올린협주곡, 관현악과 피아노독주, 합창과 같은 훌륭한 음악명작들이 형상되도록 품을 들여 지도해주시였다. 그 하많은 낮과 밤의 사연들을 어찌 그이의 천재적인 예술적재능에 대한 칭송만으로 다 설명할수 있으랴.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길에 나선 조선의 혁명가들이 어떻게 첫걸음을 떼야 하며 자나깨나 명심하고 계승해나가야 할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넋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의 맹세와 각오의 분출인것이다.

만경대는 혁명의 고향이고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이다.

만경대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우리 수령님의 멀고 험한 투쟁의 길에서 사연깊게 태여난 혁명가요인 《사향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굳세고 아름다운 인간들인 조선의 혁명가들을 탄생시킨 어머니의 노래와도 같다. 《사향가》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움트게 한 조국애의 정화이며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천배로 분출시켜주는 사랑의 불꽃이다.

주체100년사와 더불어 조선혁명의 새 세대가 력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계주봉을 이어받아야 할 그들에게 우리 수령님께서는 《사향가》의 노래를 불러주고계신다.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본적도 없고 빼앗긴 조국에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도 책이나 영화를 통하여서만 알고있는 행복동이들에게 혁명의 첫걸음을 쉽게 떼지 말라고 노래불러 가르쳐주고계신다. 인민을 자기의 부모형제처럼 사랑하고 조국을 자기의 가정처럼 생각하며 그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사람이 혁명가라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서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육탄이 되여 개척한 투사들이 이제는 우리곁에 거의 없다. 하지만 그들이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배운 수령님의 《사향가》는 어제도 오늘도 이 땅에 울려퍼지고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자기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해가는 조선의 혁명가들의 심장속에 《사향가》가 살아있는 한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의 사상과 정신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것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차게 타오를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이며 선렬들의 간절한 소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애국의 길에 떨쳐나선 선군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사향가》를 잊지 말자.

혁명의 길에 한몸을 바치겠다고 붉은기앞에 맹세를 다질 때, 그 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 혁명가의 영웅성과 희생성이 요구될 때 우리모두 열네살의 어버이수령님께서 비장한 맹세를 안고 서시였던 눈보라치던 압록강가에 자신을 세워보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금수산기념궁전에,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찾아가 충정의 보고를 삼가 드릴 때 우리 떳떳이 고백하자. 《사향가》를 사랑한다고.

리경섭, 우정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주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하싼 라베히가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외무성 부상 박길연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화환 진정

열렬한 애국자이신 리보익녀사 탄생 135돐에 즈음하여 5월 31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녀사의 묘앞에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묘앞에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군사대학, 교육,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만경대혁명일가의 위대한 애국, 애족, 애민의 가풍을 빛내이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광부들의 생활실에도 들리시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일터마다에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어느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뜻깊은 그날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골광산 광부생활실에도 들리시였다.

학습실과 탈의실, 목욕탕과 혁신자식당까지 갖추어진 광부생활실은 광부들이 충분한 문화휴식을 할수 있는 조건들이 훌륭히 마련되여있었다.

손색이 없이 잘 꾸려진 목욕탕과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놓여있는 푸짐한 식탁도 일일이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단하다고, 광부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땅속의 보물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과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인 로동계급의 건강과 바꿀수 없다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금골광산 광부생활실을 꾸려놓고 광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고있는것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조건에 대하여 먼저 마음쓰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일군들모두는 우리 로동계급을 끝없이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강철남

영웅중대를 찾으신 사연

경애하는 장군님은 선군시대의 총잡은 우리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키워 시대와 력사앞에 떳떳하게 내세워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주체93(2004)년 1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부대의 어느 한 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 중대로 말하면 가렬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곱명의 공화국영웅을 배출한것으로 하여 전군에 널리 알려진 중대였다.

이곳 중대를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대군인들이 진행하는 시랑송모임을 보아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시랑송모임을 진행하는 군인들의 감격은 이를데 없이 컸다.

전화의 그날 불뿜는 적의 화구를 향해 육탄이 되여 돌진하던 리수복영웅의 불굴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고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행복으로 간주했던 영웅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와 격정없이 들을수 없는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모두가 21세기의 리수복, 김광철이 될것을 맹세하는 격동적인 시랑송모임은 화선병사들의 멸적의 기상을 방불케 하였다.

열렬한 심장의 맹세가 불길처럼 뿜어져나오는 군인들의 시랑송모임을 처음부터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랑송이 끝나자 선참으로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중대의 병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숭엄한 격정속에 우러르며 저마다 여덟번째 영웅이 되여 영웅중대의 위훈과 전통을 이어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데서 무적의 용맹을 떨치려는 병사들의 비상한 각오에 저으기 감동되신듯 그이께서는 그들을 뜨겁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 시랑송모임에서 군인들이 저마다 중대의 여덟번째 영웅이 되겠다고 결의하였는데 이 중대에서 멀지 않아 여덟번째 영웅이 꼭 나오리라고 확신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영웅게시판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게시판에는 중대가 낳은 일곱명의 공화국영웅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전투위훈을 소개하는 글들이 차례로 나붙어있었다.

영웅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그들의 위훈담을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여덟번째 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누가 여덟번째 영웅이 될것인가!

위대한 선군시대의 영웅이 남먼저 되리라는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비껴있는 그 여덟번째 칸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다시금 중대군인들모두가 여덟번째 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두가 여덟번째 영웅이 되라!

그날 중대군인들의 훈련모습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들이 영웅이 되겠다는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다 영웅이 될수 있다고,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는 일곱명의 영웅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온 중대가 다 영웅이 될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영웅적위훈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최영림총리 여러 부문 사업 료해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최영림총리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안변청년발전소, 중앙양묘장, 강남군 읍협동농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해당 단위들에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기술개건을 다그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들에서는 선진기술에 의거한 압연강재생산공정의 주체화를 실현하며 효률높은 발전설비들을 생산보장하는 문제, 나무모생산의 공업화와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문제 등 여러 부문 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

최영림총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논벼농사에서 보다 큰 혁신을!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협동벌은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모내기전투에서 이룩되고있는 각지 농촌들의 혁신적인 소식과 앞으로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농업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모내기가 시작된지도 이제는 어지간히 기일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각 도들에서의 모내기실태에 대하여 알고싶다.

부상: 지금 인민생활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모내기에 힘차게 떨쳐나선 결과 각 도들에서 혁신의 새 소식들이 련이어 들려오고있다. 현재 각 도들의 모내기실적을 보면 황해남도가 제일 앞장서고 그 뒤를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북도가 바싹 따라서고있다.

특히 본보기농장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5월 24일까지 기본면적에 대한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였다.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내기를 끝내거나 마지막고비에서 다그치고있다.

기자: 황해남도가 앞서나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부상: 그것은 도에서 모를 잘 키워놓고 물대기, 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들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데 있다.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농장들에서 물대기와 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부림소들을 적극 리용하도록 하였다.

지금 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재령벌과 연백벌의 농장들을 보면 모내기할 포전들에 미리 물을 충분히 대고 뜨락또르와 함께 부림소들을 리용하여 써레치기를 질적으로 앞세워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도에서는 안악군 룡산, 경지, 재령군 북지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모내기를 끝낸 농장들이 속속 배출되고있다.

기자: 앞으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빨리 결속하자면 어떤 문제들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국장: 올해에는 봄철에 불리한 날씨조건으로 모가 빨리 자라지 못하였기때문에 지난 시기보다 모내기가 늦게 시작되였다. 때문에 모내기기간이 퍽 짧아진것만큼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

이에 맞게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기계모내기면적을 늘여야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 그러므로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은 기대정비를 제때에 깐지게 하고 부속품들을 제때에 교체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모내기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야 한다.

모를 튼튼하게 키워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중단없이 내밀어야 한다. 농장들에서는 모기르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모판관리공들이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마지막 모가 나갈 때까지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뜨기로력조직을 더욱 짜고들며 모운반에 여러가지 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모내기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질을 보장하는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처장: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면 알곡수확고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모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모꽂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장들에서는 기계로 모를 내는 면적을 최대로 늘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모내기를 한 다음에는 2~3일안으로 외대모나 빈포기에 대한 보식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그리고 모가 물우에 뜨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꽂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한데 의하면 모를 2~3㎝깊이로 정확히 꽂은 포전에 비하여 5㎝이상 깊이 꽂은 포전의 알곡소출이 정보당 10%이상 떨어졌다.

다음으로 모가 끊어지지 않도록 뜨며 뿌리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뜬 모는 묵이지 말고 그날로 꽂아야 한다. 대비시험을 해본 결과 모를 뜬 다음 2일이 지나서 모내기를 한 논에서는 소출이 정보당 550㎏, 3일이상 지나서 모를 낸 논에서는 600㎏이상 떨어졌다.

모든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을 때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내기를 철저히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야 한다.

본사기자 문길수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다그치자

앞그루작물가을걷이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는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야 하는 시기를 다투는 영농작업인것만큼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의 예비는 두벌농사를 잘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각지 농촌들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미 많은 면적에 앞그루로 밀, 보리, 감자 등의 작물을 심었다. 그런것만큼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예견성있게 잘해놓아야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수 있다. 또한 뒤그루작물심기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가 앞그루작물이 익는족족 제때에 거두어들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앞그루작물을 제때에 와닥닥 가을하여 걷어들이기 위한 준비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농장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안고 작전과 지휘를 잘해야 한다. 일군들은 있을수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면밀히 타산하여 가을걷이일정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가을걷이적기판정을 잘한데 기초하여 날자별, 포전별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준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와 뒤그루작물심기는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영농작업인것만큼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지 않고서는 시기성을 보장할수 없다. 모든 농장들에서는 앞그루작물가을과 낟알털기에 농기계를 적극 리용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그루작물을 가을하는족족 뒤따라 논밭갈이, 써레치기를 할수 있게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하여야 한다.

중소농기구준비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농장들에서는 실정에 맞는 운반수단들과 소농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일단 앞그루작물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와닥닥 끝낼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낟알건조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가을한 밀, 보리는 수분이 많기때문에 잘 말리우지 않으면 싹이 나오거나 쉽게 부패변질될수 있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탈곡장바닥과 건조로, 창고들을 잘 보수하여 비가 와도 낟알을 제때에 건조시켜 보관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농촌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필요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철은 로력이 제일 긴장한 시기인것만큼 로력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맡아나선 책임감을 간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앞그루작물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해나가고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홍성철 찍음

온천군에서

병충해방지에 기생벌을 적극 리용

최근년간 온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농업생산에 생물학적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붉은눈알기생벌을 리용하여 농작물의 병충해를 미리막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바람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올해농사를 작전하면서 군일군들이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붉은눈알기생벌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더 늘이는 사업이였다. 그것은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이 기생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가고있기때문이였다.

지난 기간 군에서는 기생벌들을 농작물의 병충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리용하여왔는데 그에 대한 농장원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우선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기생벌들을 생산할수 있는것은 물론 병해충의 피해를 얼마든지 막을수 있는것이다. 군에서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인 6월 중순부터 보름에 한번씩 기생벌들을 포전들에 놓아주군 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작물의 초기생육에 해를 주던 여러가지 병해충들을 미리 없애버려 알곡수확을 높일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였다.

또한 많은 로력예비도 얻어내여 다른 영농작업을 지장없이 밀고나갈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농약준비와 운반에 들던 많은 자금도 절약하여 적지 않은 리익을 줄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특히 농장원들속에 유기농법, 선진영농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안겨준것은 더욱 좋았다.

올해에 군에서는 기생벌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리용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일군들은 먹이보장사업을 비롯하여 기생벌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이와 함께 생산된 기생벌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협동농장들에 공급해주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워놓았다.

군식물방역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생벌생산을 늘이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갔다.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그들은 해당 부문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생벌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안의 여러 농장들을 다니면서 기생벌리용에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사업도 내밀었다.

이와 함께 밤에 활동하는 땅속해충도 기생벌로 없앨 목표밑에 이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우렝이에 의한 논벼재배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요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우렝이유기농법은 물속에서 풀을 먹으며 자라는 우렝이의 생물학적특성을 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거나 또는 적게 쓰면서도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농사방법이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올해에 당의 뜻대로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미 많은 우렝이를 생산하였다.

그러면 우렝이에 의한 논벼재배에서 당면하여 나서는 기술적요구는 무엇인가.

우선 포전준비를 잘해야 한다.

포전준비에서 중요한것은 써레치기를 잘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렝이가 물면과 그 속에 있는 풀만 먹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여 땅바닥이 물면우에 올라온것이 없도록 하며 벼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렝이는 흐르는 물이나 낮은 논두렁을 타고 올라와 기여다니므로 논두렁을 평상시보다 10㎝ 더 높이고 배수구에 망사를 설치하여 우렝이가 논에서 다른 곳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논에 우렝이놓아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우렝이놓아주기에서는 포전별 김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 우렝이기준량에서 증가 또는 감소량을 타산해볼 필요가 있다.

우렝이는 포전둘레의 길이를 재여보고 1m당 놓아줄 량을 타산하여 논두렁을 따라가면서 골고루 놓아주면 된다. 우렝이는 하루에 자기 몸질량의 10%에 해당한 풀을 먹으므로 큰 우렝이를 놓아주었을 때 김잡이효과를 더 높일수 있다.

우렝이놓아주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 우렝이는 모살이가 끝난 후에 놓아주는것이 좋다. 그래야 우렝이가 벼모를 잘라먹지 못하고 갓 돋아나오는 풀을 먹을수 있다. 만일 우렝이를 모내기이후 인차 논에 넣으면 모살이가 끝나지 않아 잎이 물면에 늘어지게 됨으로써 벼모가 피해를 받을수 있다. 반대로 우렝이를 논에 늦게 넣으면 풀이 자라서 물면우에 올라와 김잡이효과가 떨어진다.

많은 농장들의 경험에 의하면 정보당 수십㎏의 우렝이를 논에 놓아주는 경우 모내기이후 8일만에 넣은 포전에는 김이 없었다. 그러나 12일만에 넣은 포전에는 김이 채 없어지지 못하였고 1개월후에 넣은 포전에서는 김을 사람이 매주기까지 하였다.

논에 우렝이를 놓아준 후 포전관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물은 벼포기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면서 깊이 대주어야 한다. 수로를 끼고있는 포전의 물대기와 물빼기를 잘하여 우렝이의 류실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렝이를 넣은 논에는 농약을 뿌리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살충제를 잎에 분무하는 경우에는 한 포전을 절반 갈라 하루간격을 두고 할수 있다.

만일 비료시비를 해야 할 때에는 논의 물을 일정한 량 뽑고 하되 비료를 준 후 2일안에 물을 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수구와 논두렁을 수시로 확인하여 우렝이가 밖으로 기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수구와 배수구에 모여든 우렝이들은 제때에 골고루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논두렁에 소석회를 조금 뿌려주면 우렝이는 알카리성을 싫어하므로 논두렁밖으로 기여나오지 못한다.

모든 농장들에서는 이상의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올해의 우렝이에 의한 논벼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리의정

모살이와 논물관리에 힘을 넣어

재령군 북지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끝낸 재령군 북지협동농장의 포전들에 모들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며 푸른 잎들을 펼치고있다. 그 비결을 물으면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한데 있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를 질적으로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모살이가 잘되도록 하는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한해농사성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그들은 그 방도를 찾아나섰다.

그 과정에 봄철에 불어오는 센 바람과 변덕스러운 일기조건에서 모살이가 잘되게 하자면 논물관리대책을 잘 세우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포착하였다.

방도를 찾은 일군들은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는것과 동시에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논물관리공들을 잘 준비시키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속에 들어가 논물관리를 잘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였다. 또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그들이 모살이시기부터 논물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이 높아지니 어느 작업반에서나 모살이가 잘되고 벼포기들이 푸르싱싱 자라났다.

제1작업반의 포전만 보아도 그렇다.

작업반의 논물관리공들은 모를 낸 이후에 벼모가 3분의 2만큼 물에 잠기도록 물대기를 하였다. 이렇게 하니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봄날씨조건에서도 벼포기들이 모살이를 빨리 끝내고 뿌리를 쭉쭉 뻗어나갔다.

이 작업반만이 아니였다. 제8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의 논물관리공들도 일기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알고 논물관리에서 책임성을 높여나가고있다.

결과 모내기가 끝난 농장의 어느 포전들에서나 풍요한 가을을 약속해주듯 벼포기들이 왕성하게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한성일

질좋은 담요를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 박천견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평양피복공장에서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지은옷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대중을 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분위기를 한층 돋구고있다.

최근에만도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십건의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였다. 설비과 책임부원 최성남, 부원 정기철동무들은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공장에서는 년간계획완수자들이 계속 배출되고있다.

오늘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주기숙

계속전진의 산울림이 메아리치는 일터

천성청년탄광에서

천성청년탄광이 변모되고있다.

탄광지구의 거리와 마을이 더욱 환해졌고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에서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폭풍속에 석탄생산이 오른것은 물론이고 모든것이 개변되여 이전시기에는 찾아볼수 없던 문화정서적인 풍경이 여기 청춘탄전에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화는 다름아닌 로동계급의 문화입니다.》

로동자구의 도로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거리가 환해졌다.

탄광지구 한복판에 천성로동자구의 주민들을 위한 여러동의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 청량음료점 등 각종 봉사시설을 갖춘 문화후생시설과 수많은 콤퓨터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도서관, 종합편의봉사망이 들어앉은 건물들이 일시에 솟아나 탄부들과 가족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다. 새로 일떠선 봉사기지들의 건축형식과 내용도 좋지만 편의시설들도 잘 갖추어졌다. 봉사자들의 봉사성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탄광의 입구로부터 구내를 련결하는 수천m구간의 흙도로가 포장도로로 변모되고 그 주변에 수천그루의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심어놓아 탄전의 공기도 달라졌다. 뿐만아니라 탄부들과 가족들이 도시사람 부럽지 않은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면서 창조의 나래를 펼칠 조건과 환경이 더욱 훌륭하게 마련되였으니 그들의 보람과 긍지 또한 크다.

우리는 변모된 탄광지구의 거리와 마을, 일터를 돌아보고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 탄부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들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탄광의 면모를 일신시킬수 있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두해전 150일전투, 100일전투기간에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길 새로운 결심을 안고 석탄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탄광지구의 면모를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사실 그때 탄광앞에는 생산일면에서만 혁신을 가져오자고 해도 힘겨운 수많은 일감이 놓여있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는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강성대국의 래일을 내다보는 눈을 틔워주었고 비약과 전진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땀으로 석탄생산도 늘이고 일터와 마을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자.

일군들이 대고조진군의 송풍기가 되여 대중의 심장마다에 이 목표를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혁신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탄부들과 종업원들, 천성로동자구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심장의 불을 안고 이 사업에 떨쳐나섰다.

대중의 열의가 나날이 높아갈수록 일군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석탄을 증산하자면 옳바른 방법론이 따라서야 하듯이 탄광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에서도 단계가 있고 구체적인 작전이 안받침되여야 하는 법이다. 바로 이곳 일군들은 중심고리를 선정한 후 력량을 집중하여 본보기를 창조한 다음 한개 대상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완성시켜나갔다.

그리하여 100일전투를 마감짓는 그해 겨울, 탄광에는 종합적인 문화후생편의봉사기지인 군민천성원과 현대적인 도서관이 솟아나게 되였다. 후방보장기지들이 전면적으로 개건되였으며 많은 갱건물과 사무실들이 번뜻하게 꾸려졌다.

지나온 나날들을 추억하며 이곳 일군들은 로동자구의 한복판에 탄부들의 문화생활거점이 훌륭히 일떠선 이후로 탄부들속에서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탄광의 현대화도 적극 다그쳐지게 되였다고 말하고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난해에 탄광에서는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탄광의 생산지령실에서는 생산지휘일군들이 텔레비죤화면과 현대화된 통신수단을 통해 모든 갱의 생산실태를 손금보듯 장악하고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불과 몇명의 인원이 수십명의 로력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많은 로력예비가 생겨나고 막장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기동성있게 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주목되는것은 생산지휘의 현대화를 탄광자체의 기술력량으로 훌륭히 실현하였다는것이다. 탄광에서는 국가과학원의 실력있는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현대화를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그 나날에 탄광의 기술자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도서관의 정보기술수단을 통하여 많은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알게 되였고 그 자료들을 탐독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지휘의 현대화사업을 최단기간에 완성할수 있었던것이다. 결국 탄광에서는 현대적인 도서관을 꾸려놓은 덕을 보는 셈이다.

올해에 들어와 탄광에서는 구내의 주요건물들과 거리들에 장식등을 설치하였다.

청춘탄전에 어둠이 깃들면 울긋불긋 아름다운 장식등의 불빛이 구내의 곳곳을 환히 밝히고있다.

하루일을 마친 탄부들이 현란한 장식등밑에서 기쁨에 넘쳐 탄전의 거리를 활보하고 청춘남녀들이 발목이 시도록 구내를 밟으며 더 좋은 래일에 대한 리상을 펼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현실이다.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총결사전인 15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가 울려퍼지던 그때로부터 불과 2년안팎에 탄전의 모습은 많이도 변모되였다.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언제, 어떻게 이렇듯 많은 일을 해놓을수 있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말한다.

누구나 당의 요구대로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해나간다면 그 어느 일터에서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 변혁의 산울림이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고.

본사기자 강명천

세상에 부럼없이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송신3유치원을 찾아서

따사롭게 비쳐드는 사랑의 해빛을 안고 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꽃망울들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꽃중에서도 제일 고운 꽃, 나는야 조선의 꽃봉오리라고 목청껏 노래부르는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

6.1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우리는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전하고싶어 영예의 1월25일모범유치원인 평양송신3유치원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울타리를 곱게 둘러친 산뜻한 건물이며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그림들과 돌조각들, 아롱다롱 곱게 칠한 유희, 오락기재들…

유치원마당에서는 교양원들과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서 노래와 춤, 민속놀이를 배합한 체육유희오락경기준비로 흥성이고있었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즐거웠다.

우리와 만난 원장 김용옥동무는 이번 6.1절을 맞으며 유치원에서 준비하고있는 다채로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어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유치원을 돌아보았다.

유치원복도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옛이야기들을 옮긴 그림들이 있었다. 그림들은 동심에 맞는 생활을 펼쳐보이면서도 교훈적인 여운을 주고있어 어린이교육교양에 이바지되고있었다.

한점한점의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들어선 곳은 《**김정일**원수님을 따라배우는 교양실》이였다.

높은반어린이들이 교양실한복판에 놓인 백두산밀영고향집사판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있었는데 한 어린이가 사판앞에서 아버지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동무를 사랑하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을 이야기하고있었다.

분과장 박윤미동무는 높은반어린이들은 누구나 아버지원수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잘 해설할뿐아니라 자기들의 행동에 꼭꼭 옮기고있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는 방들에도 들려보았다.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하여 어린이지능교육을 할수 있도록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가 설치되여있는 매 방에서는 어린이들의 우리 말, 셈세기수업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원장은 어릴 때부터 사물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으로 교육을 주니 어린이들의 사고력은 더 빨리 발전한다고 하면서 벌써 단어만들기는 물론 동요, 동시를 짓고 붓글씨도 잘 쓰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들과 여러 경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는 재간둥이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끝없는 자랑을 펼치는것이였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며 어느 한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5살, 6살 난 어린이들이 붓을 쥐고 《우리는 행복해요》, 《선군의 꽃망울》 등을 바른글씨체로 어렵지 않게 쓰고있었다.

전국적인 유치원어린이들의 서예경연들과 여러차례 진행된 태양절기념 전국서예축전에서 10여명의 어린이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이야기하는 교양원 리순영동무의 얼굴에 재능의 싹을 훌륭히 가꾸어가는 긍지와 보람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는 특히 오성국, 박원혁어린이들을 비롯하여 꼬마서예가들은 글짓기에서도 뛰여난 재간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유치원의 교양원들과 어린이들이 올린 글작품집 《사랑의 품》을 보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행복의 요람에서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재간둥이들에 대한 자랑은 지능놀이실에서 만난 교양원 한정희, 배현옥동무들한테서도 들을수 있었다.

어린 바둑명수들에 대한 이야기며 예술축전무대를 빛내인 꼬마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재능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교양과 영양관리를 위해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는 김길춘동무를 비롯한 유치원의 모든 교양원들과 후방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행복의 웃음꽃 만발하는 유치원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학령전교육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다.

일찌기 뛰여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들을 유치원시기부터 잘 키우도록 교육교양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뛰여난 재간둥이들의 텔레비죤무대도 펼쳐주신 그 사랑속에서 이곳 유치원어린이들만이 아닌 온 나라 어린이들은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앞날의 미술가, 예술가, 과학자로 자라날 푸른 꿈을 키워가고있는것이였다.

하기에 유치원의 매 방마다에서는 이런 노래가 울려나오고있었다.

…

꽃망울 그속에 감춰둔 꽃향기
꽃필 때 그 향기 누구를 줄가
꿀벌나비 너에게 안기여줄가
아니예요 아니 원수님께
향기가득 가득 안겨드릴래
아 나는야 조선의 꽃봉오리

은방울같은 고운 목소리를 합쳐 오늘의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끝없이 노래하는 어린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복받은 아이들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더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여나거라, 조국의 창창한 미래는 너희들의것이다.

글 및 사진 김옥별

황해북도도서관에서

늘어나는 독자들

요즘 황해북도도서관이 날을 따라 더욱 흥성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사리원시의 중심구역에 웅장하게 건설된 도서관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서관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모든 도서관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풍경이 달라졌다. 이제는 책이나 신문과 마주한 사람들만 볼수 있는 곳이 아니다. 책장번지는 소리만 들리는 곳은 더욱 아니다. 강의실과 학습실, 열람실 그 어디서나 마우스를 쥔 독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각종 영상 및 문서자료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교환되는 음성들도 들려온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도서관을 찾는 독자들의 60~70%가 청소년학생들과 대학생들이다. 그에 못지 않게 과학자, 기술일군들을 비롯한 현장연구사들과 교원들도 많다고 한다. 그들이 제일 기다리는것은 인민대학습당의 실시간원격강의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원격강의는 《지구물리탐사수단의 CNC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인데 청강생들의 임의의 질문에 대하여 친절한 대답과 설명을 해주면서 심도있게 진행된 그 강의는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 및 자료통보실실장 리춘실동무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CNC와 지열에 대한 원격강의를 요구하는 요청자들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한다.

청강생들의 요구에 따라 판장 류영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신과학기술문제들에 대한 록화강의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평양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즉석에서 토론할수 있게 되였으니 정말 멋있는 강의를 받았다고, 이처럼 훌륭한 도서관을 마련해주신 우리 장군님께 큰절을 올리고싶다고 청강생들은 목메여 말하고있다. 이것은 또한 도서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과학기술현장봉사활동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도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연구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다.

지금 황해북도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제일 인기있는 소식들중의 하나는 도방송에서 알려주는 《도서관에서 알리는 소식》이다.

과학기술보급의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황해북도도서관은 날이 갈수록 도안의 인민들과 친숙해지고있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어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선군시대의 인재가 되려는 불타는 열망이 조국땅 어디서나 끓어넘치고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자강도예술단 평양에서 공연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자강도예술단 공연이 5월 30일과 3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설화와 합창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녀성독창 《우리 수령님》, 혼성2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자강도인민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녀성4중창과 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녀성민요4제창 《장군님 꽃펴주신 내 조국이라오》, 녀성민요독창 《비날론 삼천리》 등의 종목들은 당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며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자강도를 비롯한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무용 《그리는 마음》, 녀성중창 《수령님 오신 길로 장군님 오셨네》를 비롯한 종목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며 승리를 떨쳐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오의 맨 앞장에 우리가 있다

평원군 대풍협동농장 제3작업반원들

간석지벌의 아침이다.

갈매기들이 방파제를 넘어 아득히 펼쳐진 협동벌의 푸른 주단우를 스칠듯 날아옌다.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들의 경쾌한 동음이 교향곡처럼 들려오고 모함들을 연방 논뚝에 날라다놓으며 미소짓는 농장원들의 모습과 시간이 다르게 푸르러가는 간석지벌의 정경은 볼수록 흐뭇하다.

모내기전투의 첫날부터 농장의 앞장에서 내달려온 대풍협동농장 제3작업반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더욱 기세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모내기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이였다. 로력과 농기구의 배치, 영농자재보장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시금 따져보고난 작업반장 강창식동무는 밤이 깊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밖에서 서영식동무가 모내는기계들을 깐깐히 살펴보고있었다.

그들은 눈인사를 나누며 포전으로 향했다. 모내기전투조직들을 짜고들었지만 어쩐지 빈틈이 있는것만 같아 마음들이 개운해지지 않았다.

얼마동안을 걸어 벼랭상모판을 가까이했을 때였다. 모판의 여기저기에서 전지불빛들이 깜박이는것이 눈에 뜨이였다.

《정말 벼모들이 실하군.》

《금선동무가 무척 애를 쓰더니… 이만하면 모내기전투에서 통장훈은 문제없이 우리 작업반거지.》

귀에 익은 작업반원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얼굴에서 뜻있는 미소가 피여올랐다.

랭상모판을 분주히 오가며 벼모들을 튼튼히 키우기 위해 모판관리공들이 흘린 헌신의 땀방울은 그 얼마였던가.

어찌 그들뿐이랴. 강창식동무의 머리속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10년전까지만 하여도 이 작업반의 농사실태는 그닥 시원치 못했다. 간석지벌이다보니 땅에 염기가 많아 지력이 높지 못했고 때없이 불어치는 세찬 비바람에 농작물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군 하였다.

그때 작업반장으로 임명된 강창식동무는 농장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질좋은 거름과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작업반건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는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갔다.

짧은 기간에 작업반의 건물이며 온실과 축산기지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웠고 작업반, 세대별 거름생산경기가 벌어져 포전들에 거름더미들이 늘어났다. 염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장원들이 구간들을 맡아가지고 흐름식으로 물대기도 진행했다.

량심의 거울인 땅은 그들의 노력을 한g도 허실없이 그대로 달아주었다. 그때부터 작업반은 농장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달려올수 있었다.

긍지높은 추억들을 더듬어보던 강창식동무는 서영식동무의 흥분된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올해 모내기에서도 첫자리는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돌격구령만 내리십시오. 농기계들의 정상가동은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야 늘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습관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청높은 소리를 알아들은 작업반원들이 달려왔다.

그날 밤 포전머리에서는 작업반원들이 둘러앉아 모내기전투조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토론들을 진행했다.

지향도 숨결도 일본새도 하나같은 3작업반의 모내기실적이 비약적으로 뛰여오를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것이다.

분조장들인 김광석, 장경순, 김성진동무들이 이신작칙으로 대오를 이끌고 농장원들인 문춘화, 김옥금, 안혜순동무들이 기계손으로 이름떨치며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모뜨기실적을 기록했다. 최경남, 김윤석동무들은 한포기의 빈자리라도 생길세라 모내는기계를 능숙하게 몰아갔다.

쌀더미의 높이이자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충정의 높이라는 자각을 안고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들의 모내기전투장에서는 노래 《승리의 길》이 높이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5월 31일 사회당출신 국회 상원의원이며 상원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 위원장인 쟝 끌로드 프레꽁을 단장으로 하는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영철,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2012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이라고 하면서 조선당과 정부는 그이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두 나라가 호상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일조국교정상화 조기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련대 오사까공동대표 아리모또 마사아끼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그들은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주체사상탑과 인민대학습당,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산원, 평양릉라소학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을 위하여 5월 31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사회당출신 국회 상원의원이며 상원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 위원장인 쟝 끌로드 프레꽁을 단장으로 하는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리영철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로동당과 프랑스 여러 정당들사이의 친선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규슈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전진성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5월 3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접견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5월 30일 이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외무상, 외무성 상임비서와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양형섭동지가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나이제리아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정의의 위업수행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로용상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쎈터에서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김팔룡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로용상부위원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친선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두 나라 방송기관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소형발전소건설 적극 추진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자강도에서 올해에 20여개의 발전소를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건설을 내밀고있다.

도중소발전소관리국에서는 건설이 진척되는데 맞게 현장기술지도를 짜고들면서 세멘트, 목재, 발전기 등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만포시에서는 실리있는 연하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콤퓨터에 의하여 조종되는 1기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의 로동자,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나머지발전설비들의 조립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희천시 류중발전소 건설자들은 30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방수로건설을 끝낸데 이어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와 물길굴확장 및 피복공사, 언제타입 등에서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초산군에서는 초산청년2호발전소건설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화평군에서도 강력한 건설력량을 뭇고 과감한 공격전으로 화평1, 2, 3호발전소건설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자성군에서는 이미 건축공사가 끝난 귀인발전소에 설비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소건설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전천군 읍발전소건설자들은 언제타입속도를 계획보다 1.5배로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강계시와 중강, 위원, 우시군을 비롯한 도내 여러 시, 군들에서도 짧은 기간에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로용상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쎈터에서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김팔룡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로용상부위원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친선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두 나라 방송기관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뿔럭불가담나라 외무상회의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대표단 귀국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뿔럭불가담나라 외무상회의에 참가하였던 박의춘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5월 3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김성기와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나스리 구스따만,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가 마중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5월 30일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5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보건부문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금연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성원국들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여 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담배통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틀협약과 담배통제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생선전대공연을 관람하고 금연쎈터를 돌아보았다.

6월중 지자기현상

6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2일, 6일, 10일, 14일, 20일, 24일, 27일, 29일.

친부모, 친형제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산동 26인민반 안명국동무의 가정에 기쁨이 한껏 넘친다.

지배인 동춘희동무를 비롯한 **남포시 와우도구역수산물직매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예군인 안철수동무를 또다시 찾아왔다. 때없이 찾아오는 그들의 진정에 영예군인의 부모와 안해는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명절날은 물론 수시로 찾아와 생활필수품과 보약들을 안겨주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준 그들인것이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동춘희동무를 비롯한 직매점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예군인 안철수동무를 위해 바친 지성은 정말 뜨겁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안철수동무는 끝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고 지금은 어느 한 기업소에서 초급일군으로, 혁신자로 이름떨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하기에 안철수동무와 그의 가족은 동춘희동무를 《우리 어머니》, 《우리 누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다.

안철수동무와 그의 가족은 직매점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내 나라를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오늘도 직매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온 겨레가 안겨살 태양의 품을 그리며

위대한 선군태양의 빛발아래 어린이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자라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남녘인민들은 끝없는 부러움과 찬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언제인가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녀성은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온넋이 끌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어디에 가보아도 모두 부럽다.

김정숙탁아소, 평양산원, 창광유치원, 평양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참으로 이북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날 때부터 부러움과 설음이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자라고있다.

인생의 새싹이 뿌리내리고 자랄수 있는 터전도 자양도 깡그리 황폐화되여버린 불모의 차거운 대지에서 가정적재난에 눈물짓고 고역에 시달리며 온갖 사회악에 물젖어 시들어가는 이남의 어린이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정말 부럽다.》

미래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우리 공화국을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자라는 《신비한 황홀경》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의 격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나라의 귀중한 모든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며 수백만 어린이모두가 왕으로 받들리우는 나라가 이북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북은 나라 전체가 행복의 요람이요, 가장 만족스런 기쁨의 동산이다.

이북어린이들은 누구나 궁궐같은 산원에서 출생의 첫 울음을 터치고 궁전같은 탁아소에서 재롱의 첫걸음을 뗀다. 행복의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의 소년궁전과 배움터들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한다.

이북의 소년궁전들을 한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혹되여 이북의 어린이중시정책과 그 생활력에 감복하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남조선의 어느 한 아동문학작가는 어린이들에게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흔히 아기를 안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 어머니의 온 정신은 아기한테만 쏠려있어 아이가 칭얼거리거나 울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아무리 편안히 앉아서도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칭얼대던 아기가 어느새 잠이 들어 꽃잎같은 입가에 미소가 흐르면 어머니는 자기의 자세가 아무리 불편해도 그저 달가와하고 흡족해한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한없는 행복감에 잠겨 별빛이며 꽃향기, 바람소리마저 빌어 아기에게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준다.

김정일령수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은 애기를 품에 안고 재우는 어머니의 헌신적이고도 티없이 맑은 사랑 그대로이다.》

이 이야기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어린이들이 조국의 미래로 어엿하게 준비해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동경심이 한껏 어려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이들이 써올린 소박한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장군님, 자신께서는 비바람, 눈바람 다 맞으시며 멀고 험한 철령의 벼랑길, 파도세찬 초도의 바다길을 헤쳐가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야영길, 행복의 요람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있어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으며 만사람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정녕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품이다.

이 위대한 현실에 매혹된 사람들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얼마전 경상남도 마산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온갖 배려를 다 베풀고있다. 이북에서는 국가가 아이들을 맡아 잘 키워주고있다. 도시와 농촌 그 어데가나 탁아소, 유치원이 세워져있기때문에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사회적관심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그뿐아니라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글을 배우며 재능을 꽃피우고있다고 한다. 이북이야말로 민중중심의 세상이고 어린이들의 천국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학생들앞에서 이런 말을 하여 그들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이북에서처럼 어린이들이 인덕정치의 대화원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다 후대교육을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열쇠로 보시고 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인덕정치의 결실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어린이교육에 모든것을 아끼지 않은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이북민중은 자기들을 보살펴주고 아름답게 다듬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을 어버이품이라고 부르고있다. 그분의 품이야말로 우리 겨레모두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태양의 품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학생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아이들에게 행복의 길,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김정일장군님의 품이 그리워요. 동화속의 락원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장군님을 노래부르며 행복을 누릴 그날을 위해 꿋꿋이 살아갈래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는 거짓을 모른다고 하였다. 동심에 담겨진 절절한 념원에서도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만을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려는 남녘겨레들의 고결한 마음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하기에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은 꿈결에도 안기고싶고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도 안기고싶은 사랑의 품이라고 가슴속진정을 터놓는것 아니랴.

그 절절한 마음은 남조선의 애어린 초등학교학생이 지은 동요 《찾아갈래요》에서도 엿볼수 있다.

새가 되여 훨훨 가고싶어요
구름되여 씽씽 가고싶어요
세상에서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꿈을 꾸면 꿈속에서 만나뵈와요
잠을 깨면 아쉬워서 눈물지어요
동무동무 손잡고 찾아갈래요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찾아갈래요

비단 한 어린이의 가슴속에 새겨진 소원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기여 만복을 누릴 통일의 그날을 그리는 남녘겨레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남녘의 이 민심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김현철

현 사태의 책임은 역적패당이 져야 한다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남조선보수당국의 극도에 달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성명은 리명박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종하지 않을것이며 반역도당의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한다는것과 당면하여 취할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에 대해 천명하였다.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파괴하며 체제대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들에게 내리는 민족의 준엄한 철추이다. 지금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대결에 기승을 부리는 매국반역의 무리들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있다.

오늘 북남관계가 더는 수습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리명박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악랄하게 감행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필연적후과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애초에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에로 나갈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들의 반통일적정체는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들고나오던 그때에 벌써 드러났었다.

리명박일당의 《대북정책》은 6.15이후의 북남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상 류례없는 대결정책이다. 그 결과가 달리 될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역적패당에 의해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북남선언들이 전면부정당하고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마련된 소중한 성과들은 깡그리 말살당하였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며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헤멈빈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지난 3년 남짓한 동안 줄곧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게 되였다.

원래 리명박은 체질적속성으로 보나 집권자로서의 자질로 보나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여 모든것을 참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에게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주고 인내성과 함께 대범한 아량도 보이였다. 이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에 의견상이는 있어도 뒤로 미루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적인 일념의 발현이였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은 우리의 선의를 오판하고 갈수록 대결광기를 부리였다. 그 무슨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끈덕지게 거부하였는가 하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특대형모략극까지 날조하고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반공화국심리모략전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대해서는 당치도 않은 《진정성》과 《사과》따위를 앵무새처럼 외우며 대화재개를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한편으로는 《급변사태》라는 허황한 개꿈을 꾸며 《통일세》니, 《도이췰란드식통일》이니 하고 《체제통일》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리명박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이제는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체제까지 마구 비난하고 헐뜯는데까지 이르렀다. 오늘에 와서 그들에게 우리와 추호도 대화를 할 생각이 없으며 끝까지 대결하고 무력으로 북침기도를 실현할 생각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해졌다.

현 괴뢰당국자들이야말로 동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기를 그만둔지 오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이며 초보적인 정치감각도 없고 민족도 인륜도덕도 모르는 깡패무리이다.

우리는 리명박패당의 본심을 알대로 안 이상 이제 더이상 그 어디에 구애될것도 주저할것도 없다. 이제 와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았댔자 그것은 시간랑비로밖에 되지 않는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를 도저히 회복할수 없는 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리명박패당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총결산하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로 넘어갈것이다. 민족을 반역하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가 하는것을 리명박일당은 이제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다.

최철순

공화국의 정당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소,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3)을 지지하여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이 남조선괴뢰들과 미국이 꾸며낸 어리석은 모략극이라는것이 날날이 폭로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번에는 그 무슨 《싸이버테로》라는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키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들의 무능력과 약점을 가리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헐뜯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이 꾸며낸 또 하나의 날조극이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에 이어 《싸이버테로》사건까지 조작한 리명박패당의 목적은 극심한 빈부차이로 사회계급적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는 남조선사회와 현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다른데로 돌리려는데 있다.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3)은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영국에 있는 조선의 벗들이며 주체사상신봉자들인 우리는 진상공개장(3)에서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괴뢰당국의 반인민적로동정책을 규탄하는 남조선로동자들

공군무력증강책동

미제가 1일부터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F—15E》전투기 12대를 배치하려 하고있다.

미공군은 영국에 기지를 두고있던 미제494비행대대소속 전투기들을 400여명의 공군병력과 같이 군산에 배치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대화》와 《평화》의 간판뒤에서 미제는 남조선에 끊임없이 침략무력을 들이밀며 괴뢰들을 북침전쟁에로 부추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어리석은 야망

리명박역도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다 못해 도이췰란드에까지 가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건드리고 대결야망을 추구하는 얼빠진 반통일넉두리들을 늘어놓았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역도의 베를린망발에 이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보수패당의 망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보수당국은 오는 8월에 미국과 벌리게 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이북5도청》이라는것을 참가시킬 꿍꿍이를 하였다.

《이북5도청》의 북침전쟁연습참가는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시 북침공격작전을 단행한 후 《이북5도청》을 내세워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결국 이 단체는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는것을 전제로 하여 조직된 매우 불순한 단체이다.

보수패당이 이런 반통일집단을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빼젓이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것은 《체제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지난해에 미국과 《북안정화》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교육》과 《재건프로그람》을 가동하는 훈련을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보수패당이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과 도발적인 북침작본인 《충무 9 000》을 짜놓고 체제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실천단계에 옮기려 하는것이다. 얼마전에 현 집권자가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인물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다가올 남북통일에 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것도 그것을 반증해주고있다. 그 속심이 그 누구의 본을 따서 어리석은 망상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한피줄을 나눈 형제들이 분렬의 장기화로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체제통일》을 실현하려는것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로서 내외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은 《도이췰란드식통일》에 대해 줄곧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에 의한 《체제통일》로서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거기에 사로잡혀있던 나머지 역적패당은 현실을 착각한 모양인데 여기는 조선반도이지 도이췰란드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바라는 《통일》은 불피코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길이다.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단호한 징벌과 파멸밖에 없다.

본사기자 장윤남

바람앞의 등불신세가 된 대결광신자들

지난 4월 29일 남조선《국회》에서 열렸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북남협력과 교류를 완전차단함으로써 남측 관련기업들과 그 가족들을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몰아간 통일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하였다. 연탁에 나선 남조선의 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고문은 최근 《비핵, 개방, 3 000》을 작성한 《정부》관계자가 자기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협력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하면서 1990년대초부터 당국에 돈을 달라고 한적도 없이 열심히 일해온 북남경제협력관련 남측업체들이 《5.24조치》로 《밑바닥인생》을 헤매이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비참한 기업가들의 생활처지를 한탄하면서 《통일부는 우리의 희망마저 잘라버렸다.》, 《우리는 통일부를 저승사자로 평가한다.》라고 지탄했다.

개성공업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과 현대아산 상무도 파산의 위기에 처한 북남협력관련 업체들의 실태를 고발하며 당국이 하루빨리 개성공업지구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것은 북남협력사업에 관여해온 몇몇 사람들의 심정만이 아니라 남조선의 전반적민심을 대변한 피의 절규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패거리들은 끝끝내 《5.24조치》만을 고집하면서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사과》가 없는 한 협력사업은 있을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북남경제협력관련 남측기업체 대표에게 《경제협력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자가 다름아닌 통일부 장관 현인택역도라는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문제는 이런 대결광신자를 비호두둔하는데 있다. 최근 리명박은 개각놀음을 벌려놓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명의 장관들을 교체하면서도 임기가 다 찬 현인택역도를 그대로 류임시키였다. 이번에 남조선 각계와 여론은 당국의 《대북강경정책》변화를 기대하면서 개각의 첫번째 대상으로 통일부 장관인 현인택을 예측했었다. 그러나 결과가 보여주는것처럼 리명박은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에 류임시킴으로써 앞으로도 《대북강경정책》을 유지, 강행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집권자의 비호밑에 기가 살아난 현인택은 또다시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제일선에서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역도는 지난 5월 16일에도 54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요구한 민관정책협의회소집을 현 북남관계를 리유로 반대해나섰다. 지금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소속 절반이상의 단체들속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런데도 현인택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의 북남관계를 고려할 때 협의회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며 끝끝내 민관정책협의회소집을 거부하였다.

망둥이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얼마전 남조선의 한 고위당국자는 외국기자단까지 불러들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는 없다.》느니, 북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한 《5.24조치》를 계속 실시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던 나머지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고있다.》, 저들이 《5.24조치》로 북에 그 무슨 《벌금을 매기고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삶은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에 《실질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고 《태도변화》를 이끌어낸다며 강행한 《5.24조치》에 의해 실지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것이 우리가 아니라 북남협력관련 남측기업들과 수많은 주민들뿐이라는것은 북남관계파탄의 상징이자 조선반도를 랭전상태로 되돌린 근본원인이며 그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것은 남측기업들이라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실패한 《5.24조치》를 철회하는것을 시작으로 북남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한 종교단체는 인도주의적사업은 북남관계상황에 따라 재개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승인없이 3국단체를 통해 지원사업을 단행하였다. 사실들은 반역패당에게 등을 돌려댄 남조선의 민심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발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반역패당이 저들의 《조치》로 피해를 본 북남경제협력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남북협력기금》대출금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지만 그것은 행차뒤 나발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그 무슨 수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건질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바람앞의 등불신세이다. 저승길은 대신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은 지금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멸망의 무덤속으로 찾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사대와 굴종이 빚어낸 파국적후과

남조선에서 미제의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한 범죄적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련이어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한 퇴역군인단체가 정부문건을 공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미제가 지난 1960년대 남조선과 여러 나라들에서 고엽제를 비롯한 유독성화학물질실험을 진행하였다. 1968년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식물과학연구소에서 세차례에 걸쳐 보내여진 각종 고엽제는 최전방에 있는 괴뢰군부대지역에서 실험이 진행되였다고 한다.

또한 남조선의 《MBC》방송은 미군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장소외 2곳에도 고엽제를 묻은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 미군기지에서 오래동안 일한 남조선주민이 자기가 직접 고엽제매몰작업에 참가하였으며 이미 공개된 미군의 고엽제매몰도 생동하게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미국의 조직적인 범죄이며 한두번에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계속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만행이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덮어버릴수도 외곡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력사의 진실이다.

산천초목도 분노로 치를 떨 미제의 반인륜적죄행은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반미감정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과연 남조선은 미국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애당초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땅은 제멋대로 짓밟고 독성물질을 마구 버려도 되는 식민지오물장이고 남조선인민들 역시 죽든살든 상관할바가 없는 식민지노예일뿐이다.

력사에는 강점군의 야수성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처럼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으면서 갖은 만행을 다 감행한 야만들은 없었다.

송유관가까이에서 놀고있던 세살 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쏘아죽이고 대낮에 남의 집에 뛰여들어 예순이 넘은 늙은이도, 만삭이 된 임신부도 가리지 않고 강간, 륜간하고 목을 졸라죽이고도 미제침략군야수들은 너털웃음을 지었다. 또 길가던 나어린 녀학생들을 땅크의 무한궤도로 무참히 깔아죽이고도 사죄의 말 한마디 하기는 고사하고 살인자처벌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지의 표현》으로 모독하며 오만무례하게 날뛰였다.

이처럼 미제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희생시키는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살인무리, 날강도들이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야만의 무리들이며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삶도, 우리 민족의 생존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력사와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을 식민지로 여기는 미국의 오만과 전횡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그것은 바로 친미에 명줄을 걸고있는자들이 아직도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 민족의 존엄을 좀먹고 인민들의 리익을 해치고있기때문이다. 리명박일당은 력사에 보기 드문 친미매국노의 무리이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괴뢰들은 미국에 빌붙어 동족을 해쳐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리명박일당은 이번에 그처럼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똑똑한 항변 한마디 못하고있다.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자국민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황당무계한 망발을 늘어놓으며 미군범죄를 가리우려 하고있다.

사대와 굴종이 체질화된 매국노들이 아니고서는 이따위 궤변을 늘어놓을수 없다.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친미매국정책이 끝장나지 않는 한 남조선에서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는 계속될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외세가 없는 세상에서 참다운 존엄과 자주권을 누리자고 해도 침략자를 할애비처럼 섬기는 매국노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피해배상을 요구

5월 26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군의 고엽제매몰범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단체는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통해 미국이 지체없이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들에게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단체는 론평을 발표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결과공개,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였다.

대결조치철회를 주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가 5월 24일 론평을 발표하여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취한 괴뢰당국의 《5.24조치》철회를 주장하였다.

론평은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조치에 의해 북과의 민간급교류마저 봉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파국에로 치닫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남북교류의 차단으로 인한 피해는 남측이 더 입고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하루빨리 대결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관계정상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부정부패를 초래한 괴뢰역도를 비난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5월 27일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부정부패를 초래한 괴뢰역도를 비난하였다.

그는 리명박이 독단으로 자기의 측근인 은진수를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결과 부정부패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이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있다고 하면서 부패한자는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뜨거운 경모심의 분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감정은 남다르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자주 뵈옵는 과정을 통하여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이번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기 나라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신 소식에 접한 중국인민들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해 불멸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탄복해마지 않으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상에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자국방문소식을 중국인민들은 크나큰 기쁨과 격정에 넘쳐 대하였다. 왜서인가. 그것은 중국인민들이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와 위대성에 매혹되였기때문이다.

지난 2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안부의 일군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이의 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삼가 올리였다. 그가 올린 선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의 높은 존경심이 담겨져있었다.

그는 서방렬강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기상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더우기 부족되는것이 많은 속에서도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는 그러한 위대한 현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실력에 대해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선물을 올리는 자리에서 그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에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놀라운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는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 형제적조선인민이 거둔 성과를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다.

이것은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조중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화원을 대를 이어 더욱 활짝 꽃피워가시며 인류의 자주, 평화위업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의 꾸밈없는 경모심의 분출이였다.

어찌 그뿐이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 료녕성인민정부 성장,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중국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리사, 중국 베이징신위통신산업집단공사 리사장 겸 총재,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일행, 중국 금패세기투자집단 리사장 겸 총경리, 길림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리사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 등이 선물들을 올리였다.

그들이 올린 선물들마다에는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칭송의 마음과 위인경모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받은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올린 선물들이 전람관에 전시되여있다. 참관을 통하여 그분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심을 잘 알수 있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다.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김일성주석께서는 공동의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중조친선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이 친선관계는 호금도총서기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있다. 중국인민은 이것을 중시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인민이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뜻깊게 맞이하리라고 확신한다.》

지난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실 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천진시당 서기인 장고려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은 중조 두 나라 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사변이라고 하면서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중국홍십자회 부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신것은 중조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과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는데 활력을 부어주었다, 장구한 혁명투쟁속에서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지켜낸 중조친선은 변함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중국당과 정부가 특별히 관심하고 극진히 환대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높은 경모심과 우리 인민에 대한 그들의 변함없는 동지적우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깊이 느끼게 한다.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는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중조친선의 뿌리를 마련하신 사연많은 동북지역을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방문하신것은 두 나라 친선관계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력사적인 중국방문소식을 《인민일보》, 중앙TV방송을 비롯한 중국의 출판보도물들이 특종보도로 앞을 다투어 전하였으며 세계의 언론계도 대서특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심에 떠받들려 조중친선의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조 택 범

악랄한 대조선적대의식의 발로

얼마전 일본의 《구원하는 모임—후꾸오까》라는 명칭을 단 극우익보수단체가 후꾸오까현정부의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출을 《위법》이라고 걸고들면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꾸오까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이 극우익보수단체는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정치교육이 진행되고있다느니》, 《보조금지출은 교육기본법에 위반된다.》느니 뭐니 하며 이런 너절한 소송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대조선적대의식에 물젖은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으로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우리는 그들의 독기어린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고 용납할수 없다.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은 누구도 빼앗을수 없고 침해할수도 없는 신성불가침의것이다. 다민족국가들에서도 소수민족들의 전통적인 력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장려하고있다. 재일조선학생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잘 알고 애국심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진행하는 민족교육을 일본반동들이 《정치교육》으로 걸고들며 어째보려 하는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성과 민족교육의 권리를 침해, 말살하려는 비렬하고 고약한 범죄행위이다.

사실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호하며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을 성근하게 도와줄 도덕적, 법적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기때문이다. 과거청산의 견지에서 보나 후대교육의 견지에서 보나 재일조선학교들에 일본학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차별없이 도와주는것은 일본당국의 마땅한 도리이다. 국제인권협약에도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해줄데 대해 규제되여있다. 그러므로 재일조선학교들을 도와주는것은 어느모로 보아도 문제시될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극우익보수세력이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에 《정치교육》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당국의 보조금지출을 막아보려는것은 극도에 이른 대조선적대의식, 민족배타주의사상의 발로이다.

이것은 갖은 수법을 다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빼앗고 재일조선교육기관들을 파괴, 제거하기 위한 추악한 잔꾀이다.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민족교육은 총련의 중요한 사업이다.

총련의 산하교육기관인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을 저애하고 억누르려는것은 총련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그것은 곧 로골적인 대조선적대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일본극우익보수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일본당국은 문제를 랭철하게 보고 극우익보수세력의 대조선적대시망동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국제법적, 인도주의적원칙에서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며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사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극우익보수분자들의 경거망동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시해볼것이다.

리 경 수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는 조선원

중국신문 글 게재

중국의 《세원속보》 5월 10일부가 《아름다운 꽃, 신기한 예술, 훌륭한 경치, 조선원은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다》라는 제목으로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 조선원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꽃의 매력—아름다운 꽃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조선원에는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전시되여있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참관자들은 그곳에서 앞을 다투어 사진을 찍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고 하면서 신문은 명화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와 세계적범위의 화초전시회들에서 련이어 특별상과 금메달, 상장등 최우수상들을 받은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조선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재배되고있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또한 《예술의 매력—신기한 공예》, 《풍치의 매력—분수의 률동, 꽃의 독특성, 건물의 소박성》이라는 소제목의 글들에서 민족적형식으로 특색있게 꾸려진 조선원과 거기에 전시된 수공예품, 우표들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인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선군조선의 장엄한 현실은 광범한 출판보도계의 주요보도대상으로 되고있다.

캄보쟈신문 《인민》은 조선에서 강성대국건설은 결정적고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추진되고 수백개의 중요대상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첨단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올해 조선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그를 위해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의 경제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중공업, 경공업공장들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정상화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공장들이 일떠서고 설비들이 현대화되였다.

올해 조선은 새해공동사설을 통하여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조선의 목표는 경제강국건설이다.

꽐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블레찐은 글에서 조선의 경제가 짧은 기간에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경제강국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된 근본비결의 하나는 경제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철저히 기초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 관계없이 무섭게 용을 쓰며 일떠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평하였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블레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인민에게는 세계에로 당당히 나아갈수 있는 힘이 있다.

60여성상 조선인민을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령도가 있고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막강한 군력이 있으며 수십년간 다지고다져온 자립적민족경제의 무진장한 잠재력이 있다.

지금 세계는 목표달성의 근본열쇠를 틀어쥔 조선인민이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보고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였으며 경공업과 농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념원과 김정일각하의 구상이 현실로 꽃펴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활발히 벌어지는 금연활동

오늘 세계적으로 흡연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540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있으며 그중 녀성사망자수는 150여만명에 이르고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흡연자수는 13억명을 헤아리며 그들이 하루에 피우는 담배는 150억대이상에 달한다.

흡연자들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도 심각해지고있다.

실례로 일본에서는 간접흡연으로 해마다 약 6 800명이 사망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모든 나라들에서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30년에 가서 흡연에 의한 년간 사망자수가 800만명이상으로 증대될것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흡연을 금지시키는것은 오늘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로부터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가지 금연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아랍추장국련방정부는 흡연금지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담배수입을 제한하고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을 금지시켰으며 출판보도물을 통한 담배광고선전도 중지하게 하였다.

웰남에서는 흡연피해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는것과 함께 흡연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고있다. 지난해에만도 100만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수도에서의 새로운 금연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은 2005년에 제정된 규정을 수정한것으로서 모든 공공건물들에서 흡연을 금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따라 비행장, 식당, 경기장, 병원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였다.

우간다정부는 담배관련 상품들에 대한 판세를 더욱 높이기로 결정하였으며 주민들이 담배의 해독성을 잘 알고 금연깜빠니야에 자각적으로 참가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에짚트국회는 지난해 수입담배에 한하여 100%의 판세를 부과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주민들속에서 흡연금지를 위한 여러가지 선전사업을 벌리도록 하고있다.

뽈스까에서는 새로운 금연조치에 따라 병원과 학교, 비행장 등 공공장소들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이 금지되였으며 그것을 어기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한편 해마다 세계금연의 날을 맞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인체에 유해로운 담배를 끊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문화적으로 살려는것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흡연피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항의를 배격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자기 나라 정부대표단의 남부꾸릴렬도방문에 대한 일본의 항의를 배격하였다.

일본당국이 로씨야정부대표단의 남부꾸릴렬도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로씨야측에 항의한것과 관련하여 외무성은 그것을 그릇된 처사로 락인하였다.

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령유권은 국제법적기초를 가지고있다고 밝히고 외무성은 이에 대해 계속 의문시하는 일본의 행동은 로일관계개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책동 규탄

△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의 한 고위성원이 최근 팔레스티나의 소리방송과의 회견에서 동부꾸드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태화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5월 25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서 유태인정착민들에게 60채의 살림집을 새로 배정하는 그 무슨 의식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이 지역을 유태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발행위로, 공개적인 전쟁으로 락인하였다.

△ 유엔인도주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으로 말미암아 가자지대에서 살고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이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당장 해제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주군사화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그 한 고리로 최근 미국은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캐너버럴 공군기지에서 새로운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적외선수감기능을 갖춘 다음세대 정찰위성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심각한 방사능오염피해

일본에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피해가 의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지통신은 5월 28일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후꾸시마현앞바다로부터 약 30㎞떨어진 바다밑에서 흙 1㎏당 320Bq의 방사성세시움—137이 검출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외에 바다밑흙 1㎏당 260Bq의 방사성세시움—134와 함께 방사성요드—131도 발견되였다.

문부과학성은 지금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0㎞떨어진 수역의 바다밑에서 평시의 조사때에 비해 수백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측되고있다고 하면서 해산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바다물오염이 심각한 속에 《아사히신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여 땅에 떨어진 방사성세시움의 90%가 땅걸면으로부터 5㎝이내에 머물러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꾜전력회사는 발전소 1호원자로에서 대지진이 발생한지 2시간만에 압력용기의 수위가 내려가 연료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후에는 원자로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핵연료가 손상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가 지진발생직후부터 험악한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그러한 가운데 태풍계절이 다가오고있어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태풍을 타고 조선반도로 밀려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하여

대상건설 완공

이란의 콤주에서 최근 여러 대상건설이 완공되였다.

5월 26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콤—가름사르 고속도로개통식과 물공급시설, 강철공장준공식이 진행되였다.

고속도로의 길이는 150㎞에 달하며 강철공장에서는 년간 55만t의 강판을 생산하게 된다.

기술자양성사업 강화

중국에서 직업기술교육에 힘을 넣어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이 사업을 통해 175만 3 000명이 기술자자격증을 받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업기술자수는 2 046만 6 000명에 달한다.

나라에서는 직업기술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검정사업을 해마다 진행하고있다.

위성도시건설 계획

캄보쟈정부가 최근 프놈뻰교외에 위성도시를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도시의 면적은 387㏊에 달하게 된다.

정부에서 공사에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수출 증대

꼬스따 리까에서 올해 첫 4개월동안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증대되였다.

특히 수산업, 농업부문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5월 25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지진피해방지노력

칠레의 로스 리오스주에서 최근 있을수 있는 지진피해에 대처한 대피훈련이 진행되였다.

리히터척도로 7.3의 지진을 가상한 이번 훈련에는 약 8만 2 000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훈련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연습이 있었다.

마약 압수

파키스탄경찰이 5월 24일 카라치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375㎏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5명의 마약관련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요르단인민들

미국에서 강한 회오리바람

미국의 중부지역에서 최근 강한 회오리바람이 련일 휩쓸어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시속 265㎞의 매우 강한 회오리바람이 들이닥쳐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은 미주리주의 죠플린시에서는 5월 25일현재 사망자수가 120여명으로 늘어나고 7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백명이 행방불명되였다.

경제적손실액은 최고 30억US$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외신들은 이 시에서 건물들은 거의나 온데간데없고 도시가 페허처럼 되였다고 전하였다.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 주들에서도 5월 24일과 25일에 휩쓴 회오리바람으로 15명이 목숨을 잃고 6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회오리바람에 의한 사망자수는 500명계선을 넘어섰다.

이것은 한해동안 도합 519명의 사망자를 낸 1953년 회오리바람피해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라고 한다.

4월 한달동안에만도 875건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지금까지 가장 많은 회오리바람이 발생한 달로 기록되였다.

앞으로 회오리바람이 또 들이닥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강한 회오리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동태평양의 물온도가 주기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현상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노력

현시기 식량안전을 보장하는것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매개 나라와 정부들의 정책들에도 국제회의들에서도 식량문제가 주요안건으로 상정되고있다. 그만큼 인류는 엄혹한 식량위기에 직면해있다. 현재 세계인구의 13%가 기아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은 여러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알곡생산의 감소, 식량생산과 수요의 불균형, 알곡을 리용한 대대적인 생물연료생산, 알곡시장들에서의 투기행위…

최근시기에는 국제적으로 식량 및 식료품랑비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유엔의 발기에 따라 해당 단체가 이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세계적으로 식량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3억t이 손실되거나 랑비된다고 한다. 보고서는 우리의 행성에 리용가능한 자원이 제한된 실정을 고려할 때 장성하는 세계인구가 먹고 살자면 식량생산을 늘이는것에 못지 않게 식량랑비를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흉작과 취약한 하부구조로 식량생산과 가공, 분배과정에 적지 않은 식량이 루실되고있다. 반면에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식료품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에 의해 막대한 식량과 식료품이 랑비되고있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에서 발전도상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식량과 식료품이 손실 및 랑비된다는것이 통계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해마다 1인당 랑비되는 식량과 식료품의 량을 대비해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이 11㎏이지만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115㎏에 달한다고 한다.

발전된 나라들에서 식료품판매업체들은 식료품의 질보다 외형에 매달리면서 먹을수 있는 식료품들을 마구 버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의 선전광고에 유혹되여 무턱대고 식료품을 대량사들임으로써 랑비를 초래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기아에 시달리고있는 현 상황에서 이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사실상 오늘 인류를 위협하고있는 심각한 식량위기문제에는 발전된 나라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식량생산을 저애하는 기후변화는 주요하게 지구온난화에 의해 초래되고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대대적인 에네르기리용으로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고 치부를 한 발전된 나라들은 방대한 온실효과가스를 방출시켜 지구온난화를 몰아온 장본인으로서 응당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식량안전을 위한 국제적움직임에 앞장서야 한다.

식량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도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 있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농업발전을 정부의 선차적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넣고있다.

부룬디부대통령은 농업부문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정부가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수행에 착수한데 대해 밝히고 농업은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부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영농방법을 개선하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식량안전보장을 정부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올해에 주민들에 대한 정연한 식량공급체계를 세우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15% 늘이려 하고있다. 중국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통지문이 하달되고 농촌전력망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 채택되는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도 활발해지고있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시아국가련합 (아세안)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에네르기와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우며 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이 주요하게 토의되였다. 남아프리카와 가봉, 케니아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은 식량생산을 저애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나라들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통일적인 립장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1110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